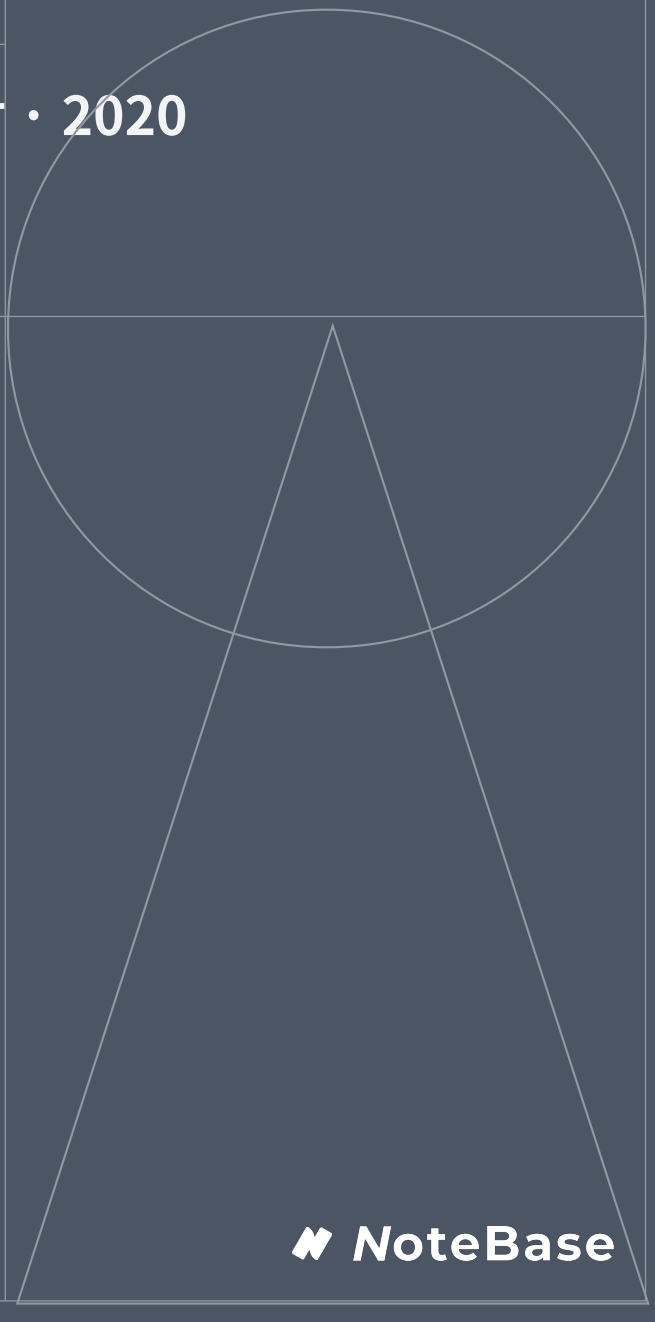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20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20

문 1. X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 시장수요곡선: $Q^D = 100 - P$
◯ 시장공급곡선: $Q^S = -20 + P$

① 균형 시장가격은 60이다.

② 균형 시장거래량은 40이다.

③ 소비자잉여는 800이다.

④ 생산자잉여가 소비자잉여보다 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장균형을 구한 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계산해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시장수요곡선은 $Q^D = 100 - P$, 시장공급곡선은 $Q^S = -20 + P$이다.
구해야 할 값: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이다.
주의할 조건: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틀린 선지를 찾아야 한다.

사용할 공식

균형은 $Q^D = Q^S$를 두고 구한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와 시장가격 위의 삼각형 면적이고, 생산자잉여는 시장가격 아래와 공급곡선 위의 삼각형 면적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선지 ①, ②는 균형값을 직접 묻고 있고, 선지 ③, ④는 균형점에서 형성되는 잉여의 크기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균형조건 $100 - P = -20 + P$를 세우면 $120 = 2P$이므로 균형가격은 $P = 60$이다.
2. $P = 60$을 수요식이나 공급식에 대입하면 $Q = 40$이므로 균형거래량은 40이다.
3. 수요곡선의 가격절편은 $Q = 0$일 때 $P = 100$이므로 소비자잉여는 $\frac{1}{2} \times (100 - 60) \times 40 = 800$이다.
4. 공급곡선은 $Q = -20 + P$, 즉 $P = Q + 20$이므로 가격절편은 $P = 20$이다. 따라서 생산자잉여는 $\frac{1}{2} \times (60 - 20) \times 40 = 800$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균형조건에서 $P = 60$이 나오므로 맞는 선지이다.
② O: 균형가격 60을 대입하면 $Q = 40$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③ O: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가격절편 100과 시장가격 60의 차이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 면적이므로 800이 맞다.
④ X: 생산자잉여는 $\frac{1}{2} \times (60 - 20) \times 40 = 800$으로 소비자잉여와 같다. 틀린 표현은 '소비자잉여보다 크다'이고, 올바르게는 '생산자잉여는 소비자잉여와 같다'이다.

오답 포인트

공급곡선의 절편을 잘못 읽으면 생산자잉여를 틀리기 쉽다. $Q = -20 + P$를 바로 보면 절편이 -20처럼 보이지만, 잉여 계산에는 $P = Q + 20$으로 바꾸어 가격축 절편 20을 써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요·공급 문제는 먼저 $Q^D = Q^S$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구한 뒤, 수요와 공급의 가격축 절편을 찾아 잉여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 마지막에는 발문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다시 확인해 답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직선 수요·공급의 잉여는 균형점까지의 삼각형 면적이며,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각각 수요·공급의 가격축 절편에서 계산한다.

NoteBase

문 2. 지방자치제도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티부 모형(Tiebout model)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재정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는다.

② 사람들의 이동성에 제약이 없다.

③ 생산기술이 규모수익체증의 특성을 갖는다.

④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티부 모형의 핵심 가정인 완전정보, 자유로운 이동성, 외부성 부재와 규모경제 가정의 배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티부 모형은 주민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조세-공공서비스 묶음을 비교한 뒤 자신에게 가장 맞는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모형이다.
이 모형이 작동하려면 주민이 각 지역의 재정 프로그램을 정확히 알고, 이동에 큰 제약이 없으며, 한 지역의 서비스가 다른 지역 주민에게 외부효과를 주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생산기술에 강한 규모수익체증이 있으면 큰 지방정부로의 집중이 유리해져 지역 간 경쟁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논리가 약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각 지역이 제공하는 재정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티부 모형의 대표적 가정이다. 주민이 조세 부담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정확히 알아야 발로 하는 투표가 가능하다.

② O
주민의 이동성에 제약이 없다는 가정도 티부 모형의 핵심이다. 원하는 조세-서비스 묶음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지역 선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X
틀린 부분은 "생산기술이 규모수익체증의 특성을 갖는다"이다. 티부 모형은 강한 규모수익체증이 존재하는 상황을 기본 가정으로 두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생산기술에 큰 규모경제가 없거나 규모수익체증이 지배적이지 않아야 여러 지방정부 간 경쟁과 주민 분산이 가능하다.

④ O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도 맞다. 한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다른 지역 주민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주면 각 지방정부의 선택 결과가 자기 지역 안에서만 정리되지 않으므로 티부 모형의 효율성 논리가 약해진다.

오답 포인트

규모수익체증은 민간기업의 생산이론에서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티부 모형에서는 오히려 지역 간 경쟁을 약화시키는 요소이다. 따라서 "완전정보, 자유로운 이동, 외부성 부재"는 기본 가정으로 기억하고, "강한 규모경제"는 배제되는 조건으로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티부 모형 문제는 "발로 하는 투표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정보가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해야 선택이 가능하며, 외부성이 없어야 각 지역의 선택 결과가 독립적으로 성립한다. 이 틀을 깨는 강한 규모경제나 외부효과는 기본 가정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티부 모형은 완전정보, 자유로운 이동, 외부성 부재를 전제로 하고, 강한 규모수익체증은 전제가 아니다.

NoteBase

문 3. IS-LM 모형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 지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 IS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
◯ LM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

① ㉠: 커진다, ㉡: 커진다
② ㉠: 커진다, ㉡: 작아진다
③ ㉠: 작아진다, ㉡: 커진다
④ ㉠: 작아진다, ㉡: 작아진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확장적 통화정책의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S 곡선이 완만하다는 것은 이자율 변화에 대한 투자와 총수요의 반응이 커서, 금리 하락이 국민소득 증가로 더 크게 이어진다는 뜻이다.
LM 곡선이 완만하다는 것은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커서, 같은 통화량 증가에도 이자율 하락폭이 작아지고 그만큼 국민소득 증가폭도 작아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IS가 완만할수록 커지고, LM이 완만할수록 작아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커진다'는 맞지만 ㄴ의 '커진다'가 틀리므로 조합 전체는 틀리다.
- LM 곡선이 완만하면 같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이자율 하락폭이 작아져 국민소득 증가폭은 작아진다.
- 틀린 표현은 ㄴ의 '커진다'이다. 올바르게는 '작아진다'이다.

② O
- ㄱ의 '커진다'는 맞다. IS 곡선이 완만할수록 금리 하락이 투자와 소득 증가로 더 크게 전달된다.
- ㄴ의 '작아진다'도 맞다. LM 곡선이 완만할수록 통화정책으로 유도되는 금리 하락과 소득 증가가 상대적으로 작다.

③ X
- ㄱ의 '작아진다'와 ㄴ의 '커진다'가 모두 틀리다.
- IS가 완만하면 통화정책 효과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 LM이 완만하면 통화정책 효과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

④ X
- ㄴ의 '작아진다'는 맞지만 ㄱ의 '작아진다'가 틀리므로 조합 전체는 틀리다.
- 틀린 표현은 ㄱ의 '작아진다'이다. 올바르게는 '커진다'이다.

오답 포인트

기울기만 보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LM도 완만할수록 정책효과가 커진다고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은 IS의 완만함은 총수요 반응 확대를 뜻하지만, LM의 완만함은 화폐수요의 높은 이자율 탄력성 때문에 같은 통화공급 확대의 금리 하락 효과를 약하게 만든다는 점을 구분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정책 문제에서는 먼저 LM 우측 이동이 금리를 얼마나 낮추는지, 그 금리 하락이 투자를 통해 소득을 얼마나 키우는지를 나누어 본다. IS가 완만하면 금리 변화의 소득 파급이 커지고, LM이 완만하면 같은 통화량 증가의 금리 하락폭이 작아져 정책효과가 줄어든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통화정책 효과는 IS 완만할수록 크고, LM 완만할수록 작다.

NoteBase

문 4. 경제활동인구가 일정한 경제에서 안정상태(steady state)의 실업률이 10%이다. 매월 취업자 중 2%가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실업자 중 매월 취업을 하게 되는 비율은?

① 2%

② 8%

③ 10%

④ 18%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정상상태 실업에서 실업 유입 인원과 실업 유출 인원을 같게 두고 실업자의 취업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안정상태 실업률 10%
- 취업자 중 매월 2%가 실업자가 된다.

구해야 할 값:
- 기존 실업자 중 매월 취업하는 비율

주의할 조건:
- 2%의 분모는 취업자이고, 구하려는 비율의 분모는 실업자이다.

사용할 공식

정상상태 실업에서는 실업으로 들어오는 인원과 나가는 인원이 같다.

$sE = fU$

여기서 s는 실직률, f는 취업률, E는 취업자 수, U는 실업자 수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안정상태에서는 실업률이 일정하므로 한 기간의 실업 유입과 유출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경제활동인구를 100명으로 두면 실업률 10%이므로 실업자는 10명, 취업자는 90명이다.
2. 매월 취업자 중 2%가 실직하므로 실업 유입 인원은 $90 \times 0.02 = 1.8$명이다.
3. 정상상태에서는 실업 유출 인원도 1.8명이어야 하므로 $10 \times f = 1.8$이다.
4. 따라서 $f = 1.8/10 = 0.18$이므로 기존 실업자 중 매월 취업하는 비율은 18%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2%는 취업자 중 매월 실직하는 비율이다. 문제는 실업자 중 매월 취업하는 비율을 묻는다. 틀린 표현은 '기존 실업자의 취업률이 2%'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2%는 취업자 집단을 분모로 한 실직률이다.
② X: 8%는 10%와 2%를 단순히 빼서 만든 값이다. 정상상태 실업에서는 실업률과 실직률을 직접 차감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실업자의 취업률 = 실업률 - 실직률'이며, 올바르게는 유입 인원과 유출 인원을 같게 놓고 계산해야 한다.
③ X: 10%는 경제 전체의 실업률일 뿐 실업자의 월별 취업률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실업률 자체가 실업자의 취업률'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실업자 10명 중 1.8명이 취업하므로 취업률은 18%이다.
④ O: 경제활동인구를 100명으로 두면 취업자는 90명, 실업자는 10명이다. 취업자 90명 중 2%가 실직하므로 실업 유입은 1.8명이다. 정상상태에서는 실업 유출도 1.8명이어야 하므로 실업자 10명 중 1.8명이 취업한다. 따라서 취업률은 18%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분모 혼동이다. 2%는 취업자를 분모로 한 실직률인데, 묻는 값은 실업자를 분모로 한 취업률이다. 또한 안정상태의 실업률 10%를 그대로 취업률로 보거나 10%-2%=8%처럼 단순 차감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상상태 실업 문제는 먼저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100으로 두고 취업자와 실업자를 나눈다. 그다음 취업자 쪽 실직 인원과 실업자 쪽 취업 인원을 같게 놓아 식을 세우면 된다. 비율의 분모가 누구인지 끝까지 분리해서 보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정상상태 실업은 유입 = 유출이다. 실직률의 분모는 취업자, 취업률의 분모는 실업자이다.

NoteBase

문 5. A기업의 단기생산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완전경쟁시장에서 A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수준에서 노동 50단위를 고용하고 있다. 노동 한 단위당 임금이 300일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물 가격은? (단,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고, Q는 생산량, L은 노동이다)

◯ A기업의 단기생산함수: $Q(L) = 200L - L^2$

① 1

② 3

③ 5

④ 9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노동의 가치한계생산 $P \times MPL$ = 임금 w를 이용해 생산물 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주어진 값: 생산함수는 $Q(L) = 200L - L^2$, 고용노동은 50단위, 임금은 300이다.
- 구해야 할 값: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물 가격 P이다.
- 주의할 조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이므로 기업은 $P \times MPL = w$를 만족하는 지점에서 노동을 고용한다.

사용할 공식

$MPL = \frac{dQ}{dL} = 200 - 2L, \quad P \times MPL = w$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완전경쟁기업이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할 때의 수입 증가분인 가치한계생산이 임금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생산함수를 미분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은 $MPL = 200 - 2L$이다.
2. $L = 50$을 대입하면 $MPL = 200 - 2 \times 50 = 100$이다.
3. 이윤극대화 조건 $P \times MPL = w$에 대입하면 $P \times 100 = 300$이므로 $P = 3$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1은 $P \times MPL = 1 \times 100 = 100$이 되어 임금 300과 같지 않다.
- 틀린 표현은 생산물 가격을 1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생산물 가격이 3이어야 가치한계생산이 임금과 일치한다.

② O
- 3은 $P \times MPL = 3 \times 100 = 300$이 되어 이윤극대화 조건을 정확히 만족한다.
- 따라서 정답 선지는 ②이다.

③ X
- 5는 $P \times MPL = 5 \times 100 = 500$이 되어 임금 300보다 크므로 노동 50단위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은 생산물 가격을 5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가격이 3일 때만 노동 50단위 고용이 최적이다.

④ X
- 9는 $P \times MPL = 9 \times 100 = 900$이 되어 임금 300과 크게 어긋난다.
- 틀린 표현은 생산물 가격을 9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생산물 가격이 3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총생산 Q를 그대로 쓰거나 평균생산 AP과 한계생산 MPL을 혼동하면 오답이 나온다. 이 문항은 반드시 생산함수를 미분해 MPL을 구한 뒤 $P \times MPL = w$를 적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기업의 노동고용 문제가 나오면 먼저 생산함수를 미분해 MPL을 구하고, 제시된 고용량을 대입한 뒤 $P \times MPL = w$ 또는 $VMPL = w$ 조건으로 가격이나 임금을 역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 노동수요의 핵심은 $P \times MPL = w$이며, 노동고용량이 주어지면 먼저 MPL부터 계산한다.

NoteBase

문 6. X재 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각 기업의 장기총비용함수와 X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다음과 같다. X재 시장의 장기균형에서 시장균형가격과 진입하여 생산하는 기업의 수를 옳게 짝 지은 것은? (단, P는 가격이고, q는 각 기업의 생산량이고, 모든 기업들의 비용함수 및 비용조건은 동일하다)

◯ 장기총비용함수: $TC(q) = 2q^3 - 12q^2 + 48q$
◯ 시장수요곡선: $D(P) = 600 - 5P$

① 장기시장균형가격: 20, 기업의 수: 100
② 장기시장균형가격: 20, 기업의 수: 120
③ 장기시장균형가격: 30, 기업의 수: 150
④ 장기시장균형가격: 30, 기업의 수: 18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P = \min AC$ 조건으로 시장균형가격을 구하고, 그 가격에서 시장수요량을 각 기업의 생산량으로 나누어 기업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장기총비용함수: $TC(q) = 2q^3 - 12q^2 + 48q$
- 시장수요곡선: $D(P) = 600 - 5P$

구해야 할 값:
- 장기시장균형가격
- 진입하여 생산하는 기업의 수

주의할 조건:
- 완전경쟁 장기균형에서는 가격이 각 기업의 최소 평균비용과 같고, 그때 기업은 $P = MC$를 만족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20

사용할 공식

평균비용은 $AC(q) = TC(q)/q$ 이다.
장기균형에서는 $P = \min AC$ 이고, 최소 평균비용점에서 $AC = MC$ 가 성립한다.
기업 수는 시장총수요량을 기업당 생산량으로 나눈 $n = Q/q$ 로 구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가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을 묻고 있으므로 이윤이 0이 되는 최소 평균비용 가격을 먼저 찾고, 그 가격에서 시장수요와 기업당 공급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평균비용을 구하면 $AC(q) = \frac{TC(q)}{q} = 2q^2 - 12q + 48$ 이다.
2. 최소 평균비용은 $\frac{dAC}{dq} = 4q - 12 = 0$ 에서 구하므로 $q = 3$ 이다.
3. 이때 $AC(3) = 2 \cdot 9 - 12 \cdot 3 + 48 = 30$ 이므로 장기시장균형가격은 30이다.
4. 가격이 30이면 시장수요량은 $Q = D(30) = 600 - 5 \cdot 30 = 450$ 이다.
5. 각 기업의 생산량은 $q = 3$ 이므로 기업 수는 $n = 450/3 = 150$ 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장기시장균형가격을 20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최소 평균비용은 30이므로 가격은 20이 아니라 30이다.
- 틀린 표현은 "장기시장균형가격 20"이다. 올바르게는 "장기시장균형가격 30, 기업의 수 150"이다.

② X
- ①과 마찬가지로 가격 20이 장기균형가격이 될 수 없으므로 뒤의 기업 수 120도 함께 틀린다.
- 틀린 표현은 "장기시장균형가격 20, 기업의 수 120"이다. 올바르게는 "장기시장균형가격 30, 기업의 수 150"이다.

③ O
- AC의 최소값이 30이므로 장기시장균형가격은 30이다.
- 이 가격에서 시장수요량은 450, 기업당 생산량은 3이므로 기업 수는 150이다.

④ X
- 가격 30은 맞지만 기업 수 180이 틀리다. 가격이 30일 때 시장수요량은 450이므로 기업 수는 $450/3 = 150$ 이어야 한다.
- 틀린 표현은 "기업의 수 180"이다. 올바르게는 "기업의 수 150"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완전경쟁 장기균형에서 $P = MC$만 보고 가격을 잡으면 오답이 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먼저 $P = \min AC$를 찾는 데 있다. ④처럼 가격은 맞추고도 시장수요량을 기업당 생산량으로 나누지 않으면 기업 수를 잘못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 장기균형 계산형은 평균비용을 만든 뒤 최소값을 먼저 찾고, 그 값을 가격으로 둔다. 그다음 그 가격의 시장수요량을 구해 기업당 생산량으로 나누면 기업 수가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 장기균형은 $P = \min AC$, 기업 수는 시장수요량 ÷ 기업당 생산량 이다.

NoteBase

문 7. 현재 시점에서 A국 경제의 채권시장에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국채만 존재하고 각각의 이자율이 3%, 5%, 6%이다. 현재 시점으로부터 2년 이후에 성립하리라 기대되는 1년 만기 국채의 이자율 예상치에 가장 가까운 값은? (단,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대한 기대이론이 성립한다)

① 4%

② 6%

③ 8%

④ 1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순수기대이론에 따라 2년 후부터 1년 동안 적용될 선도금리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현재 1년 만기 국채 이자율은 3%이다.
- 현재 2년 만기 국채 이자율은 5%이다.
- 현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은 6%이다.
- 구해야 할 값은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는 2년 후의 1년 만기 이자율이다.

사용할 공식

$(1+r_3)^3 = (1+r_2)^2(1+f_{2,3})$

여기서 $f_{2,3}$는 2년 후부터 1년 동안의 기대 단기이자율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기대이론에서 3년물에 지금 투자하는 수익률이 2년물에 투자한 뒤 1년물에 다시 투자하는 기대수익률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3년물 누적수익률과 2년물 후 재투자 누적수익률을 같게 둔다.
2. $(1.06)^3 = (1.05)^2(1+f_{2,3})$
3. $1+f_{2,3} = \frac{(1.06)^3}{(1.05)^2} \approx 1.0803$
4. $f_{2,3} \approx 0.0803 = 8.03\%$

따라서 2년 후의 1년 만기 국채 이자율 예상치는 약 8%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계산 결과는 약 8.03%이므로 4%는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예상이자율을 4%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약 8%이다.

② X

- 6%는 현재 3년물 현물이자율이지 2년 후의 1년물 기대이자율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현물이자율과 선도금리를 같게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약 8%이다.

③ O

- 기대이론으로 구한 선도금리가 약 8.03%이므로 8%가 가장 가깝다.

④ X

- 10%는 2년물과 3년물 금리 차이를 과장해서 해석한 값으로 볼 수 있으나, 기대이론의 누적수익률 식을 적용하면 나오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예상이자율을 10%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약 8%이다.

계산 결과가 약 8.03%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오답 포인트

②처럼 현재의 3년물 금리 6%를 미래 1년물 금리와 동일시하거나, ④처럼 만기별 금리 차이만 보고 선도금리를 감으로 잡으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현물이자율과 선도금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간구조 기대이론 문제는 먼저 장기채의 누적수익률과 단기채 연쇄투자의 누적수익률을 같게 놓는다. 그다음 구하려는 구간의 미래 1년 금리만 남기도록 식을 정리하면 선도금리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기대이론의 핵심은 장기 현물이자율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1 + r_n)^n$에서 구간별 선도금리를 분리해 계산하는 데 있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에 대한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소득세의 대폭 감면을 통해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부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세금감면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러한 재정정책의 결과로 ㉠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① 소비자들이 현재 저축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② 소비자들은 현재소득과 미래소득 모두를 고려하여 소비를 결정한다.

③ 소비자들은 미래에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④ 소비자들은 미래에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 감세가 왜 현재 소비를 늘리지 않을 수 있는지, 즉 리카도 대등정리와 기간 간 소비선택의 논리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개념

리카도 대등정리: 정부지출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감세를 국채 발행으로 메우면 현재 세금이 미래 세금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민간의 평생소득은 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기간 간 소비선택: 소비자는 현재소득만이 아니라 미래소득과 미래 조세부담까지 함께 고려하여 현재소비와 저축을 결정한다.
핵심 구분: 소비가 늘지 않는 직접 근거는 미래 조세부담 때문에 평생소득이 늘지 않는다는 점이지, 미래 금리 하락 기대 그 자체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소비자들이 감세분을 바로 쓰지 않고 현재 저축을 늘리면 현재 소비는 증가하지 않는다. 국채 발행은 장차 세금으로 상환된다고 보므로 감세분을 미래 조세부담에 대비한 저축으로 돌리는 설명이 된다.
② O. 소비자는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을 함께 고려해 소비를 정한다. 따라서 일시적 감세가 있더라도 미래에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보면 현재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다.
③ O. 이 선택지의 핵심은 미래 조세부담 증가 예상이다. 정부가 지금 감세하고 국채를 발행하면 나중에 그 부채를 갚기 위한 세금이 늘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현재 소비 대신 저축을 택한다는 설명이 성립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미래에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표현이다. ①의 주장에 대한 핵심 근거는 미래 금리 전망이 아니라 미래 세금 증가 예상과 그에 따른 평생소득 불변이다. 올바르게는 '소비자들은 미래에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현재 감세분을 저축한다'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감세가 나오면 자동으로 소비가 늘어난다고 단순 연결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정부지출은 그대로이고 적자는 국채로 메운다'는 조건을 넣어 현재 감세가 미래 증세의 다른 시점 표현일 수 있음을 묻는다. ④처럼 금리 전망을 끼워 넣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문제의 논거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미래 조세부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세와 국채 발행이 함께 나오면 먼저 정부지출이 변하는지 확인한다. 정부지출이 그대로이면 현재 감세는 미래 증세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소비가 늘지 않는 근거는 '평생소득 불변'과 '미래 조세부담 예상'에서 찾으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적자 감세 + 정부지출 불변 = 현재 감세, 미래 증세이므로 소비 증가는 불확실하고 저축 증가 논리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9. 다음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식에서 노동자 1인당 GDP 증가율이 4%, 노동자 1인당 자본 증가율이 6%일 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 성장회계식:
$\frac{\Delta Y}{Y} = \frac{\Delta A}{A} + \frac{1}{3}\frac{\Delta K}{K} + \frac{2}{3}\frac{\Delta L}{L}$
(단, $\frac{\Delta Y}{Y}$, $\frac{\Delta A}{A}$, $\frac{\Delta K}{K}$, $\frac{\Delta L}{L}$은 각각 GDP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자본 증가율, 노동자 증가율이다)

① 1%

② 2%

③ 3%

④ 4%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성장회계식을 노동자 1인당 변수로 바꾸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노동자 1인당 GDP 증가율은 4%, 노동자 1인당 자본 증가율은 6%이다.
구해야 할 값: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다.
주의할 조건: 제시식은 총량 Y, K, L 기준이므로 노동자 1인당 변수로 바꾸어 해석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성장회계식은 $\frac{\Delta Y}{Y} = \frac{\Delta A}{A} + \frac{1}{3}\frac{\Delta K}{K} + \frac{2}{3}\frac{\Delta L}{L}$이다.
이를 노동자 1인당 변수로 바꾸면 $\frac{\Delta(Y/L)}{Y/L} = \frac{\Delta A}{A} + \frac{1}{3}\frac{\Delta(K/L)}{K/L}$가 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총량 증가율이 아니라 노동자 1인당 GDP와 노동자 1인당 자본 증가율을 직접 주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노동자 1인당 GDP를 $y = Y/L$, 노동자 1인당 자본을 $k = K/L$로 두면 $\frac{\Delta y}{y} = \frac{\Delta A}{A} + \frac{1}{3}\frac{\Delta k}{k}$가 된다.
2.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4 = \frac{\Delta A}{A} + \frac{1}{3} \times 6$이다.
3. 자본심화의 기여분은 $\frac{1}{3} \times 6 = 2$이므로 $\frac{\Delta A}{A} = 4 - 2 = 2$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계산 결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이므로 1%는 아니다.
틀린 표현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이다"이다.

② O
노동자 1인당 성장회계식에 대입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가 된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다.

③ X
3%가 나오려면 자본분배율 $\frac{1}{3}$을 반영하지 않거나 6%의 기여분을 1%로 잘못 계산한 경우가 많다.
틀린 표현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3%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이다"이다.

④ X
4%는 노동자 1인당 GDP 증가율 자체이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아니다. 자본심화 기여분 2%를 빼지 않으면 이런 오답이 나온다.
틀린 표현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4%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노동자 1인당 GDP 증가율 4%에서 자본심화 기여분 2%를 뺀 2%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제시된 식이 총량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고 노동자 1인당 증가율을 그대로 읽으면 오답이 나온다. 특히 노동자 1인당 GDP 증가율 4%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동일시하거나 자본 증가율 6% 전체를 그대로 빼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자 1인당 생산량과 노동자 1인당 자본이 주어지면 먼저 $y = Y/L$, $k = K/L$ 형태의 1인당 성장회계식으로 바꾼다. 그다음 자본분배율만큼의 자본심화 기여분을 계산해 생산성 증가율과 분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코브 더글러스 생산함수 $Y = AK^{1/3}L^{2/3}$에서는 1인당 성장률이 $g_y = g_A + \frac{1}{3}g_k$ 형태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0.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정책을 시행하여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 예상되는 경제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ㄱ. 유동성선호이론에 의하면, 국채매입은 화폐시장에 초과공급을 유발하여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ㄴ. 단기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통해 산출량은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한다.
ㄷ. 장기적으로 경제는 자연산출량 수준으로 회귀한다.
ㄹ. 새고전학파에 따르면, 경제주체의 정책 예상이 완벽한 경우 단기에도 산출량은 불변이고 물가만 상승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공개시장조작에 따른 화폐시장 균형 변화, 단기 총수요 확대 효과, 새고전학파의 예상된 정책 효과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동성선호이론은 이자율이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이며,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화폐공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춘다.
단기 총수요 확대는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산출량과 물가를 함께 올리는 효과를 낸다.
새고전학파의 정책무력성 정리는 경제주체가 정책을 완벽하게 예상하면 체계적 통화정책이 단기에도 산출량을 바꾸지 못하고 물가만 올린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틀리고 ㄴ은 맞으므로 조합 전체는 틀리다. ㄱ의 틀린 부분은 "초과공급을 유발하여 이자율을 상승시킨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이 화폐공급을 증가시켜 화폐시장에 초과공급을 만들고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①은 "ㄴ만 포함하고 ㄱ은 제외"되어야 맞는 방향이다.

② X
ㄴ과 ㄷ은 모두 옳지만 ㄹ이 빠져 있어 조합이 불완전하다. ㄹ도 새고전학파의 정책무력성 정리에 따르면 옳다. 틀린 부분은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에서 ㄹ을 제외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ㄴ, ㄷ, ㄹ"이다.

③ X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이 빠져 있어 조합이 불완전하다. 단기에는 총수요 증가로 산출량과 물가가 함께 상승하므로 ㄴ도 포함되어야 한다. 틀린 부분은 ㄴ을 누락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ㄴ, ㄷ, ㄹ"이다.

④ O
ㄴ, ㄷ, ㄹ을 모두 포함한 조합이므로 옳다. ㄴ은 단기 총수요 증가로 산출량과 물가가 함께 상승한다는 설명이고, ㄷ은 장기에 경제가 자연산출량으로 복귀한다는 설명이며, ㄹ은 완전예상하의 새고전학파에서 산출량은 불변이고 물가만 오른다는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ㄱ의 방향을 반대로 기억하는 점이다. 국채매입은 시중에 돈을 푸는 확대정책이므로 이자율 상승이 아니라 이자율 하락으로 연결된다. 또 ②와 ③처럼 맞는 진술 일부만 묶어 놓은 선택지를 보고 조합 완전성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공개시장 국채매입이면 화폐공급 증가, 이자율 하락을 바로 연결한다. 다음으로 단기는 산출량과 물가가 함께 움직이고 장기는 자연산출량으로 복귀한다는 축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새고전학파에서 완전예상된 정책은 실질산출량을 못 바꾼다는 점을 대입하면 ㄴ, ㄷ, ㄹ이 남는다.

암기 포인트

국채매입은 돈을 풀어 이자율을 낮추고, 단기에는 산출량과 물가를 함께 올리며, 완전예상된 통화정책은 새고전학파에서 물가만 올린다.

NoteBase

문 11.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공재는 경합성이 낮다는 점에서 공유자원과 유사하다.
ㄴ. 공유자원은 남획을 통한 멸종의 우려가 존재한다.
ㄷ. 정부의 사유재산권 설정은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ㄹ.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는 공공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재, 공유자원, 클럽재를 배제성과 경합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공재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키워드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다.
공유자원은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인 재화이다. 키워드는 공유지의 비극, 남획이다.
클럽재는 배제적이지만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키워드는 유료, 혼잡 전까지 비경합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ㄱ의 틀린 부분은 공공재가 공유자원과 경합성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본 점이다. 공공재는 경합성이 낮지만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높다. 올바르게는 공공재는 공유자원과 비배제성에서 유사하고, 경합성이 낮다는 점에서는 클럽재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X: ㄷ은 옳지만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ㄱ의 틀린 부분은 경합성이 낮다는 점에서 공유자원과 유사하다고 한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으므로 공공재와 경합성 측면에서 대비되는 재화라고 고쳐야 한다.
③ O: ㄴ과 ㄷ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공유자원은 비배제성 때문에 과잉 이용이 발생하기 쉬워 남획과 멸종 우려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공유지의 비극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명확히 설정해 이용 책임을 내부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X: ㄴ은 옳지만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ㄹ의 틀린 부분은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를 공공재의 예라고 본 점이다. 유료도로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이용을 막을 수 있으므로 배제 가능하다. 올바르게는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는 클럽재의 예라고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모두 비배제적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같은 유형처럼 묶으면 ㄱ에 걸리기 쉽다. 또한 도로가 막히지 않는다는 점만 보고 비경합성만 떠올리면 유료라는 배제성을 놓쳐 ㄹ을 맞는 진술로 오해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배제성과 경합성의 두 축으로 재화를 분류하면 된다. 비배제적·비경합적이면 공공재, 비배제적·경합적이면 공유자원, 배제적·비경합적이면 클럽재이다. 그다음 각 진술이 어느 축을 말하는지 확인하면 조합형 보기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비배제·비경합, 공유자원은 비배제·경합, 클럽재는 배제·비경합이다.

NoteBase

문 12. 헥셔-오린(Heckscher-Ohlin) 모형의 기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산업에서 규모수익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② 양국 간 기술수준 및 선호는 다르다.

③ 노동과 자본의 산업 간 이동은 완전히 자유롭다.

④ 노동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헥셔-오린 모형이 무역의 원인을 기술격차가 아니라 요소부존의 차이로 설명한다는 점과 그 기본 가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헥셔-오린 모형은 양국의 기술수준과 선호는 같고 요소부존 비율만 다르다고 두어 비교우위가 생긴다고 보는 모형이다. 리카도 모형은 기술격차가 무역의 원인이고, 헥셔-오린 모형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서 비교우위가 생긴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1번 O: 헥셔-오린 모형의 표준 가정에는 완전경쟁과 규모수익 불변이 포함된다. 따라서 각 산업에서 규모수익은 일정하다는 진술은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기술수준 및 선호는 다르다"는 표현이다. 헥셔-오린 모형은 양국의 기술수준과 선호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요소부존의 차이가 무역의 원인이라고 본다.
3번 O: 노동과 자본은 한 나라 내부에서는 산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야 각 재화의 생산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가 더 많이 투입되는 구조가 성립한다.
4번 O: 노동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국제적 요소이동까지 허용하면 재화무역의 원인과 효과를 순수하게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답 포인트

2번은 리카도 모형의 기술격차 논리를 헥셔-오린 모형의 가정으로 바꿔 넣은 함정이다. 무역원인을 기술 차이로 보느냐, 요소부존 차이로 보느냐를 섞으면 쉽게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무역 모형 문제에서는 먼저 비교우위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된다. 기술 차이를 말하면 리카도, 기술과 선호는 같고 요소부존 차이를 말하면 헥셔-오린으로 판단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헥셔-오린은 같은 기술·같은 선호, 다른 요소부존이다.

NoteBase

문 13. 재정의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제정책의 내부시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ㄴ. 경기회복기에는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ㄷ. 누진적 소득세제와 실업보험제도는 자동안정장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정의 자동안정장치가 재량적 재정정책과 어떻게 다르고, 경기 변동을 어떤 방식으로 완화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동안정장치는 정부가 새 정책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아도 경기 변동에 따라 조세와 이전지출이 자동으로 반응해 총수요 변동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내부시차는 정책 필요 인식, 의사결정, 입법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자동안정장치는 이런 재량적 결정 과정이 거의 없어 내부시차를 줄여 준다.
경기회복기에는 세수 증가와 이전지출 감소가 총수요 증가를 일부 눌러 경기회복 속도를 다소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다. 틀린 부분은 ㄷ을 제외한 조합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② X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다. 틀린 부분은 ㄴ을 뺀 조합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경기회복기에는 자동안정장치가 회복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으므로 ㄱ, ㄴ, ㄷ이다.

③ X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다. 틀린 부분은 ㄱ을 제외한 조합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자동안정장치는 재량적 정책결정 없이 작동하므로 내부시차를 줄여 주는 ㄱ도 포함한 ㄱ, ㄴ, ㄷ이다.

④ O
ㄱ은 자동안정장치가 재량적 결정 없이 작동하므로 내부시차를 줄여 준다는 설명으로 옳다. ㄴ은 경기회복기에는 증세 효과와 이전지출 감소 효과가 총수요를 일부 억제해 회복 속도를 완만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ㄷ은 누진적 소득세와 실업보험이 대표적 자동안정장치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자동안정장치를 경기침체기에만 유효한 장치로 기억하면 ㄴ을 틀리기 쉽다. 이 장치는 침체기에는 하방을 막고, 회복기와 호황기에는 과열도 누그러뜨리는 양방향 완충장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동안정장치가 나오면 먼저 정부의 별도 의사결정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지 본다. 그다음 침체기에는 경기하락을 완화하고 회복기·호황기에는 경기상승을 다소 억제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동안정장치 = 내부시차 축소 + 경기변동 완화 + 대표 예시는 누진세와 실업보험이다.

NoteBase

문 14. 독점기업 A는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두 공장의 비용함수와 A기업이 직면한 시장수요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A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각 공장의 생산량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총생산량, Q_1은 공장 1의 생산량, Q_2는 공장 2의 생산량이다)

◯ 공장 1의 비용함수: $C_1(Q_1) = 40 + Q_1^2$
◯ 공장 2의 비용함수: $C_2(Q_2) = 90 + 6Q_2$
◯ 시장수요곡선: $P = 200 - Q$

① Q_1: 3, Q_2: 94
② Q_1: 4, Q_2: 96
③ Q_1: 5, Q_2: 98
④ Q_1: 6, Q_2: 1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다공장 독점의 이윤극대화 조건 $MR = MC_1 = MC_2$를 이용해 각 공장의 최적 생산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시장수요는 $P = 200 - Q$이므로 총수입은 $TR = (200 - Q)Q$, 한계수입은 $MR = 200 - 2Q$이다. 공장 1의 한계비용은 $MC_1 = 2Q_1$이고 공장 2의 한계비용은 $MC_2 = 6$이다. 비용함수의 상수항 40과 90은 고정비이므로 생산량 배분을 정하는 한계조건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다공장 독점의 최적 생산배분은 생산하는 모든 공장에 대해 $MR = MC_i$가 성립하는 점이다. 같은 기업이 여러 공장에서 생산할 때는 각 공장의 한계비용을 같게 맞춰야 같은 총산출량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계산 과정

공장 2의 한계비용이 $MC_2 = 6$으로 일정하므로 최적점에서는 $MR = 6$이다. 따라서 $200 - 2Q = 6$에서 $2Q = 194$, $Q = 97$이다. 또 $MC_1 = 2Q_1 = 6$이므로 $Q_1 = 3$이다. 따라서 $Q_2 = Q - Q_1 = 97 - 3 = 94$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Q_1 = 3, Q_2 = 94$이면 총생산량은 $Q = 97$이고 $MR = 200 - 2 \times 97 = 6$이다. 이때 $MC_1 = 2 \times 3 = 6$, $MC_2 = 6$이므로 $MR = MC_1 = MC_2$가 성립한다.
② X: $Q_1 = 4, Q_2 = 96$이면 $Q = 100$, $MR = 0$, $MC_1 = 8$, $MC_2 = 6$이 되어 생산 공장들의 한계비용이 한계수입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은 공장 1 생산량 4와 총생산량 100이며, 올바르게는 $Q_1 = 3, Q_2 = 94$이다.
③ X: $Q_1 = 5, Q_2 = 98$이면 $Q = 103$, $MR = -6$, $MC_1 = 10$, $MC_2 = 6$이므로 추가 생산이 이윤을 줄이는 구간이다. 틀린 값은 공장 1 생산량 5와 총생산량 103이며, 올바르게는 $Q_1 = 3, Q_2 = 94$이다.
④ X: $Q_1 = 6, Q_2 = 100$이면 $Q = 106$, $MR = -12$, $MC_1 = 12$, $MC_2 = 6$이 되어 한계수입보다 한계비용이 크다. 틀린 값은 공장 1 생산량 6과 총생산량 106이며, 올바르게는 $Q_1 = 3, Q_2 = 94$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총비용 자체보다 한계비용 비교가 핵심이다. Q만 대충 늘리거나 고정비 40, 90을 한계조건에 끼워 넣으면 ②⊠④처럼 총생산량과 공장별 배분을 모두 잘못 잡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공장 독점은 먼저 시장수요에서 MR을 구한 뒤, 생산하는 모든 공장에 대해 $MR = MC_i$를 맞춘다. 마지막에는 $Q = Q_1 + Q_2$가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다공장 독점의 배분 원리는 $MR = MC_1 = MC_2$, 총산출은 $Q = Q_1 + Q_2$이다.

NoteBase

문 15. A국 경제의 인구와 기술 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안정상태(steady state)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0.125, 감가상각률은 0.1이다. 현재 안정상태의 자본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표준적인 솔로우 모형이다)

① 황금률수준(golden rule level)의 자본량보다 많다.

② 황금률수준의 자본량보다 적다.

③ 황금률수준의 자본량과 동일하다.

④ 황금률수준의 자본량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율이 0인 표준적 솔로우 모형에서 황금률 자본축적 조건 $MPK = \delta$를 이용해 현재 안정상태 자본량이 황금률 자본량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주어진 값: 현재 안정상태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0.125, 감가상각률은 0.1이다.
- 주의할 조건: 인구와 기술 수준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n = 0, g = 0$이다.
- 구해야 할 값: 현재 안정상태의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보다 큰지 작은지이다.

사용할 공식

황금률 자본축적의 조건은 $MPK = \delta + n + g$이다. 이 문제에서는 $n = 0, g = 0$이므로 황금률 조건은 $MPK = \delta$가 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황금률 자본량은 소비를 극대화하는 자본량이고, 그 지점의 한계생산물이 감가상각과 같아지는 점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황금률 수준에서의 자본 한계생산물을 구하면 $MPK_{GR} = \delta = 0.1$이다.
2. 현재 안정상태에서는 $MPK = 0.125$이므로 황금률 수준보다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더 크다.
3. 자본은 많아질수록 한계생산물이 하락하므로, 한계생산물이 더 크다는 것은 현재 자본량이 황금률 자본량보다 더 적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현재 안정상태의 $MPK = 0.125$가 황금률 조건의 $MPK = 0.1$보다 크므로 현재 자본은 황금률보다 부족하다. 틀린 표현은 "많다"이고, 올바르게는 "황금률수준의 자본량보다 적다"이다.

② O
인구와 기술이 고정된 솔로우 모형에서 황금률은 $MPK = \delta$일 때이다. 현재는 $0.125 > 0.1$이므로 자본이 아직 황금률 수준에 못 미친다. 따라서 현재 안정상태의 자본량은 황금률수준의 자본량보다 적다.

③ X
현재 자본량이 황금률 자본량과 동일하려면 MPK가 정확히 0.1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MPK = 0.125$이므로 동일하지 않다. 틀린 표현은 "동일하다"이고, 올바르게는 "황금률수준보다 적다"이다.

④ X
주어진 정보만으로도 방향은 확정된다. MPK와 δ를 비교하면 현재 자본이 황금률보다 적은지 많은지 판단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이고, 올바르게는 "황금률수준의 자본량보다 적다"이다.

오답 포인트

많은 수험생이 안정상태 조건과 황금률 조건을 같은 것으로 혼동한다. 안정상태는 저축과 감가상각이 같아지는 점이고, 황금률은 $MPK = \delta + n + g$가 되는 소비극대화 점이다. 이 문항의 함정은 현재가 이미 안정상태라는 말에 끌려 곧바로 황금률과 같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솔로우 모형에서 현재 자본이 황금률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묻으면 먼저 MPK와 $\delta + n + g$를 비교한다. $MPK > \delta + n + g$이면 자본이 부족한 상태이고, $MPK < \delta + n + g$이면 자본이 과다한 상태이다.

암기 포인트

황금률은 $MPK = \delta + n + g$, 이보다 MPK가 크면 자본 부족, 작으면 자본 과다이다.

NoteBase

문 16. 단기적으로 대미 환율(₩/$)을 가장 크게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조합으로 옳게 짝 지은 것은? (단, 우리나라는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다. IS와 LM 곡선은 각각 우하향, 우상향하며, 경제주체들의 환율 예상은 정태적이다)

① 확장적 재정정책, 확장적 통화정책

② 확장적 재정정책, 긴축적 통화정책

③ 긴축적 재정정책, 확장적 통화정책

④ 긴축적 재정정책, 긴축적 통화정책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변동환율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환율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
변동환율제이다.
단기적으로 정책은 국내 금리를 바꾸고, 그 금리 변화가 자본유출입과 환율 변화를 만든다.

핵심 개념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변동환율제와 완전자본이동이 결합되면 국내 금리를 높이는 정책은 자본유입을 불러 원화절상을, 국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은 자본유출을 불러 원화절하를 만든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각 정책이 국내 금리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본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은 모두 국내 금리를 올리는 방향이므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함께 만든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내 금리를 올려 자본유입과 원화절상 요인이 된다.
그러나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내 금리를 낮춰 자본유출과 원화절하 요인이 된다.
틀린 표현은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가장 큰 환율 하락을 만들려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② O
확장적 재정정책은 IS를 우측으로 이동시켜 국내 금리를 높이고 자본유입을 유발하므로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킨다.
긴축적 통화정책은 LM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국내 금리를 더 높이고 추가 자본유입을 유발하므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가장 크게 만든다.

③ X
긴축적 재정정책은 총수요와 국내 금리를 낮춰 자본유출과 원화절하 요인이 된다.
확장적 통화정책도 국내 금리를 낮춰 원화절하 요인이 된다.
틀린 표현은 정책조합 전체이다.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려면 "긴축적 재정정책, 확장적 통화정책"이 아니라 "확장적 재정정책, 긴축적 통화정책"이어야 한다.

④ X
긴축적 재정정책은 국내 금리를 낮춰 원화절하 요인이고 긴축적 통화정책은 국내 금리를 높여 원화절상 요인이다.
두 정책의 환율 효과가 반대로 작용하므로 원/달러 환율을 가장 크게 하락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긴축적 재정정책"이다. 가장 큰 환율 하락을 원하면 재정정책은 확장적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여부만 보고 환율 방향을 거꾸로 잡기 쉽다. 이 문항은 경기확대인지 긴축인지보다 국내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먼저 보는지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동환율제 소규모 개방경제 문제는 정책에서 끝내지 않고 정책 → 국내 금리 → 자본유출입 → 환율 순서로 판단한다. 금리를 올리는 조합은 원화절상, 금리를 내리는 조합은 원화절하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변동환율제와 완전자본이동에서는 금리 상승 조합은 절상, 금리 하락 조합은 절하이다.

NoteBase

문 17. 부분지급준비제도하의 통화공급 모형에서 법정지급준비율과 초과지급준비율의 합이 1보다 작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C/D 비율의 증가로 발생하는 현상은? (단, C는 현금, D는 요구불예금이다)

① 현금 유통량이 증가하고 통화공급도 증가한다.

② 통화공급은 증가하지만 지급준비금은 변화가 없다.

③ 통화공급이 감소한다.

④ 현금 유통량은 증가하지만 통화공급은 변화가 없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분지급준비제도에서 현금예금비율 $c = C/D$ 이 상승할 때 통화승수와 통화공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금예금비율 c 는 민간이 예금보다 현금을 얼마나 더 보유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부분지급준비제도에서 통화승수는 $m = \frac{1+c}{c+r+e}$ 이고, r 은 법정지급준비율, e 는 초과지급준비율이다.
문제 조건처럼 $r + e < 1$ 이면 c 가 커질수록 통화승수와 통화공급은 감소한다. 이는 $m = \frac{1+c}{c+r+e}$ 을 c 에 대해 미분해 $\frac{dm}{dc} = \frac{(c+r+e)-(1+c)}{(c+r+e)^2} = \frac{r+e-1}{(c+r+e)^2}$ 을 구하면 확인된다. 분모 $(c+r+e)^2$ 은 항상 양수이므로 부호는 분자 $r+e-1$ 이 결정하는데, $r+e<1$ 이면 $r+e-1<0$ 이 되어 $\frac{dm}{dc}<0$ 이다. 즉 c 상승 시 분자는 1 만큼, 분모는 1 보다 큰 값만큼 늘어나 분모 증가폭이 분자 증가폭을 압도하므로 통화승수가 하락한다. 예컨대 $r+e=0.2$ 일 때 c 가 0.2 에서 0.4 로 오르면 m 은 $\frac{1.2}{0.4}=3$ 에서 $\frac{1.4}{0.6}\approx 2.33$ 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통화승수와 통화공급은 감소한다. 반면 현금보유 비중은 높아지므로 현금 유통량은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현금 유통량 증가는 맞지만 통화공급 증가가 틀리다. $r + e < 1$ 이면 c 상승으로 통화승수 m 이 하락하므로 통화공급은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통화공급도 증가한다'이고, 올바르게는 '통화공급은 감소한다'이다.

② X

통화공급 증가가 틀리다. 또한 기초통화가 일정할 때 c 가 상승하면 예금과 지급준비금은 함께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틀린 표현은 '통화공급은 증가하지만 지급준비금은 변화가 없다'이고, 올바르게는 '통화공급은 감소하고 지급준비금도 감소한다'이다.

③ O

현금예금비율 상승은 민간이 예금 대신 현금을 더 보유한다는 뜻이므로 통화창조 과정이 약해진다. 문제 조건 $r + e < 1$ 에서 통화승수는 하락하고, 따라서 기초통화가 일정하면 통화공급은 감소한다.

④ X

현금 유통량 증가는 맞지만 통화공급 불변이 틀리다. c 상승은 단순한 구성 변화에 그치지 않고 통화승수를 낮춘다. 틀린 표현은 '통화공급은 변화가 없다'이고, 올바르게는 '통화공급은 감소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현금 유통량 증가와 통화공급 증가를 같은 방향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제의 함정은 '현금을 더 많이 든다'는 사실과 '은행을 통한 예금창조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분리해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금예금비율이 오르면 먼저 '은행 밖으로 현금이 빠져나가 예금창조가 약해진다'를 떠올리면 된다. 그다음 통화승수 $m = \frac{1+c}{c+r+e}$ 에서 $r + e < 1$ 조건을 확인하면 통화공급 감소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현금예금비율 상승 = 현금보유 증가, 예금창조 약화, 통화공급 감소이다.

NoteBase

문 18. A국과 B국은 노동만을 사용하여 X재와 Y재만을 생산한다.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시간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옳은 것은? (단, 양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교역을 하고, 교역에 따른 비용은 없다)

(단위: 시간)

국가 \ 재화	X	Y
A	3	6
B	3	7

① X재 1단위가 Y재 $\frac{1}{3}$ 단위와 교환되는 교역조건이면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A국은 X재 생산에, B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 A국은 X재와 Y재의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④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작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의 노동투입량으로 절대우위, 비교우위, 그리고 교역조건의 성립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나라의 X재 1단위, Y재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확인한다.
2. 같은 재화의 노동시간을 비교해 절대우위를 본다.
3. 한 재화 1단위의 기회비용을 다른 재화 단위로 바꾸어 비교우위와 교역조건 범위를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A국에서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Y재 1/2단위이고, B국에서는 Y재 3/7단위이다. 따라서 X재 1단위의 국제교역조건은 Y재 3/7단위와 1/2단위 사이에서만 양국 모두 이익을 본다.
제시된 교역조건은 X재 1단위 = Y재 1/3단위인데, 이는 B국의 국내 기회비용인 Y재 3/7단위보다 낮다. 따라서 B국은 X재를 수출할 유인이 없으므로 무역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X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더 낮은 나라가 가진다. X재의 기회비용은 A국이 Y재 1/2단위, B국이 Y재 3/7단위이므로 B국이 X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Y재는 A국의 기회비용이 X재 2단위, B국이 X재 7/3단위이므로 A국이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틀린 표현은 "A국은 X재 생산에, B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B국은 X재 생산에, A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이다.

③ X
절대우위는 같은 재화 1단위를 더 적은 노동으로 생산하는 나라가 가진다. X재는 A국과 B국이 모두 3시간이므로 어느 나라도 절대우위를 가지지 않는다. Y재는 A국 6시간, B국 7시간이므로 A국이 절대우위를 가진다.
틀린 표현은 "A국은 X재와 Y재의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A국은 Y재에만 절대우위가 있고, X재에서는 양국이 동일하다"이다.

④ X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Y재 1/2단위, B국이 Y재 3/7단위이다. 3/7이 1/2보다 작으므로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더 작다.
틀린 표현은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작다"이다. 올바르게는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작다"이다.

오답 포인트

X재의 노동시간이 두 나라 모두 3시간이라는 점 때문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혼동하기 쉽다. 절대우위는 같은 재화의 직접 노동시간을 비교하고, 비교우위는 다른 재화를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또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야 무역이 성립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가 나오면 먼저 같은 재화의 노동시간으로 절대우위를 본다. 그다음 각 재화 1단위의 기회비용을 상대 재화 단위로 바꾸어 비교우위를 찾는다. 국제교역조건이 제시되면 그 값이 두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면 무역 성립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직접비교, 비교우위는 기회비용 비교, 교역조건은 두 나라 기회비용 사이에서만 성립한다.

NoteBase

문 19. 차별적 과점시장에서 활동하는 두 기업 1, 2가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다음과 같다. 두 기업은 가격을 전략변수로 이용하며, 기업 1이 먼저 가격을 책정하고, 기업 2는 이를 관찰한 후 가격을 정한다. 두 기업의 균형가격을 옳게 짝 지은 것은? (단, Q_1은 기업 1의 생산량, Q_2는 기업 2의 생산량, P_1은 기업 1의 가격, P_2는 기업 2의 가격이고, 각 기업의 한계비용과 고정비용은 0이다)

◯ 기업 1의 수요곡선: $Q_1 = 20 - P_1 + P_2$
◯ 기업 2의 수요곡선: $Q_2 = 32 - P_2 + P_1$

① P_1: 34, P_2: 32
② P_1: 36, P_2: 34
③ P_1: 38, P_2: 36
④ P_1: 40, P_2: 38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차별적 과점의 순차적 가격경쟁에서 후진유도로 선도기업의 가격과 추종기업의 반응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업 1의 수요는 $Q_1 = 20 - P_1 + P_2$, 기업 2의 수요는 $Q_2 = 32 - P_2 + P_1$이다.
각 기업의 한계비용과 고정비용이 0이므로 이윤은 각각 $\pi_1 = P_1Q_1$, $\pi_2 = P_2Q_2$이다.
기업 1이 먼저 가격을 정하고 기업 2가 이를 보고 가격을 정하므로 추종기업의 반응함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추종기업 2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사용한다.
$\pi_2 = P_2(32 - P_2 + P_1)$, $\frac{d\pi_2}{dP_2} = 32 - 2P_2 + P_1 = 0$
따라서 기업 2의 반응함수는 $P_2 = 16 + \frac{P_1}{2}$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순차게임에서 선도기업이 추종기업의 최적 반응을 예상해 자신의 가격을 정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기업 2의 반응함수는 $P_2 = 16 + \frac{P_1}{2}$이다.
2. 이를 기업 1의 이윤함수 $\pi_1 = P_1(20 - P_1 + P_2)$에 대입하면 $\pi_1 = P_1\left(36 - \frac{P_1}{2}\right) = 36P_1 - \frac{1}{2}P_1^2$이다.
3. $\frac{d\pi_1}{dP_1} = 36 - P_1 = 0$이므로 기업 1의 최적 가격은 $P_1 = 36$이다.
4. 이를 반응함수에 대입하면 $P_2 = 16 + \frac{36}{2} = 34$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제시값은 $P_1 = 34, P_2 = 32$인데, $P_1 = 34$일 때 기업 2의 최적 반응은 $P_2 = 16 + \frac{34}{2} = 33$이다. 따라서 $P_2 = 32$는 추종기업의 최적 가격이 아니며, 올바른 균형가격은 $P_1 = 36, P_2 = 34$이다.
② O. $P_1 = 36$이면 기업 2의 반응함수에서 $P_2 = 34$가 나온다. 이때 기업 1의 이윤도 극대화되므로 순차적 가격경쟁의 균형가격은 $P_1 = 36, P_2 = 34$이다.
③ X. 제시값은 $P_1 = 38, P_2 = 36$인데, $P_1 = 38$일 때 기업 2의 최적 반응은 $P_2 = 35$이다. 또한 기업 1의 최적 가격도 38이 아니라 36이므로 제시된 가격쌍은 균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P_1 = 36, P_2 = 34$이다.
④ X. 제시값은 $P_1 = 40, P_2 = 38$인데, $P_1 = 40$일 때 기업 2의 최적 반응은 $P_2 = 36$이다. 선도기업도 반응함수를 예상하면 40이 아니라 36을 택한다. 따라서 올바른 가격쌍은 $P_1 = 36, P_2 = 34$이다.

오답 포인트

동시가격경쟁처럼 각 기업의 반응함수를 동시에 푸는 실수와, 추종기업의 반응함수 $P_2 = 16 + \frac{P_1}{2}$를 구해 놓고도 이를 선도기업의 이윤함수에 대입하지 않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제시된 오답들은 추종기업의 최적 반응 검산만 해도 바로 걸러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도자와 추종자가 보이면 먼저 추종자의 반응함수를 구하고, 그 식을 선도자의 이윤함수에 대입해 다시 극대화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마지막에는 제시된 가격쌍이 추종자의 반응함수를 만족하는지 검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차별적 과점의 순차적 가격경쟁은 '추종자 반응함수 먼저, 선도자 대입 나중'의 후진유도 구조이다.

NoteBase

문 20.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시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노동자들은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킨다.

② 화폐의 중립성이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도 성립한다고 가정하여 통화량 변화는 경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경기변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기술충격(technical shock)이다.

④ 임금 및 가격이 신속히 조정되어 시장이 청산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물경기변동이론의 핵심 가정인 기술충격, 단기 화폐중립성, 시장청산, 노동의 기간 간 대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물경기변동이론은 기술충격 같은 실물충격이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어 시장이 청산된다고 보고, 화폐는 단기에도 실물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
또한 노동공급은 기간 간 대체로 설명하므로 현재 노동의 상대적 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때 현재 노동공급이 늘어난다.

선지별 해설

1번: X. 실물경기변동이론에서 노동공급의 기간 간 대체는 현재 노동의 상대적 수익이 높아질 때 현재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보다 미래의 상대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약해져 현재 노동공급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노동자들은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킨다"이고, 올바르게는 "이자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현재 노동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이다.
2번: O. 실물경기변동이론은 화폐의 중립성이 단기에도 성립한다고 보므로 통화량 변화는 실질 생산이나 고용 같은 경기변동의 핵심 원인이 되지 못한다.
3번: O. 이 이론은 경기변동의 주요 원인을 총수요 충격이 아니라 기술충격 같은 실물충격에서 찾는다.
4번: O. 실물경기변동이론은 가격과 임금이 신속하게 조정되어 각 시장이 계속 청산된다고 가정한다.

오답 포인트

1번은 노동의 기간 간 대체라는 문구 자체는 맞지만, 이자율 변동의 방향을 반대로 적어 둔 함정이다.
실물경기변동이론에서는 화폐중립성, 기술충격, 시장청산은 자주 바로 떠올리지만,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조건이 이자율 하락이 아니라 상대수익 상승이라는 점에서 많이 틀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물경기변동이론 선지는 네 가지 축으로 점검하면 된다. 화폐는 단기에도 중립인지, 경기 원인이 기술충격인지, 가격과 임금이 신축적인지, 노동공급이 현재 수익 상승 때 늘어나는지 순서대로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실물경기변동이론은 기술충격, 단기 화폐중립, 시장청산, 현재 수익 상승 시 노동공급 증가로 정리된다.

NoteBase